

이슈브리핑 vol.324 2025년 7월

# ISSUE BRIEFING



## 종교를 넘어, 전북 모두의 기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자

연구책임

장세길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김상엽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세계 각국에서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하고, 전주교구대회에 외국인 1만여 명을 포함하여 4~5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행사라는 점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K-문화수도 전북을 알리고 우수한 종교유산을 활용한 종교·순례관광을 진흥하는 중요한 기회임
- 전북도가 종교행사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목적은 '전북에 방문한 세계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K-문화수도 전북만의 세계청년대회가 되도록 돕고', '국제순례지 승인 등 종교·순례관광을 진흥'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첫째, 대회를 지원할 정책 기반 마련임. 전북도와 시군, 관련 기관, 다른 종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지원조직과 종합계획, 천주교 등 지역 내 종교의 유산과 성지를 보존·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함
- 두 번째 세부 과제는 대회 참여자를 위한 순례길 정비와 순례 프로그램 개발임. 순례길 노면을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과 외국인 접근성을 높여야 함.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셔틀버스를 도입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구간도 필요함. 해설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셋째, K-문화와 종교유산이 연계된 융합콘텐츠와 축제 개발이 필요함. "대회는 서울에서, 체험은 전북에서"라는 목표 아래, 더 많은 청년이 전주교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국의 전통문화와 K-POP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국 교구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종교공존 대표 지역으로서 브랜드 구축과 종교유산의 국제화가 필요함. 국제적 관심을 받는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이어져야 함. 여러 종교가 함께 하는 이웃종교 탐방길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순례길로 만들어야 함. 전북 순례지를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로 격상시키고, 전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뿐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한 6대 종교 유산의 추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함
- 끝으로,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이나, 일반인도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감이 형성되는 글로벌 문화축제 성격을 가지며, 종교·순례관광 진흥의 기회라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어 환대의 마음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

# 1 매머드급 국제행사, ‘세계청년대회’

## (1) 세계청년대회 개요

### » 평균 15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청년대회<sup>1)</sup>

- 세계청년대회는 1985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젊은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목적으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되었고, 2023년 열여섯 번째 대회까지 세계 청년의 순례·친교를 위한 국제대회(International level)로 성장함
- 1986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해마다 각 지역의 교구에서 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세계 젊은이와 순례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서 3~4년에 한 번씩 개최됨
- 세계청년대회는 평균 180개국에서 참여하며, 참석자 규모가 매머드급임.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는 약 4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에는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는데, 이마저도 약 40만 명에 달함. 가장 최근 대회인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는 약 150만 명이 참석하였음

〈세계청년대회 개최 현황과 참석자 수〉

연도	개최 일자	국가	도시	참석자 수
1985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	300,000명
1987년	4월 11~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000,000명
1989년	8월 15~20일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400,000명
1991년	8월 10~15일	폴란드	체스토호바	1,600,000명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검토 보고” 참조

연도	개최 일자	국가	도시	참석자 수
1993년	8월 10~15일	미국	덴버	500,000명
1995년	1월 10~15일	필리핀	마닐라	4,000,000명
1997년	8월 19~24일	프랑스	파리	1,200,000명
2000년	8월 15~20일	이탈리아	로마	2,000,000명
2002년	7월 23~28일	캐나다	토론토	800,000명
2005년	8월 16~21일	독일	켈른	1,200,000명
2008년	7월 15~20일	호주	시드니	400,000명
2011년	8월 16~21일	스페인	마드리드	2,000,000명
2013년	7월 23~2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700,000명
2016년	7월 26~31일	폴란드	크라쿠프	3,500,000명
2019년	1월 22~27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700,000명
2023년	8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	1,500,000명

자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2025.1)에서 재인용

### » 종교를 넘은,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sup>2)</sup>

-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참여한 순례자는 모두 35만 4,000명임. 일반적으로 정식 등록 참여자만큼 미등록 순례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순례자만 80여 만명에 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회 자원봉사자만 해도 2만 5,000여 명에 이룸. 성직자는 각국에서 추기경 30여 명, 주교 688명이 참석함
- 한국에서는 리스본 대회에 추기경을 비롯하여, 대주교(서울대교구장) 등 주교단 10명과 16개 교구, 수도회, 학교 등에서 모두 1,082명이 참여함

2) [https://www.crs-news.com/26376?utm\\_source=chatgpt.com](https://www.crs-news.com/26376?utm_source=chatgpt.com)

○ 대회는 지역교구 행사와 본 행사로 구분해서 진행되는데, 종교대회라고 해서 종교인만 참여하거나 종교 프로그램만 운영되지 않고, 세계 청년을 비롯하여 일반인도 참여하여 국제적인 교류가 이뤄짐. 리스본 대회에서는 90여 개 장소, 600개 이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유스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는 예술가 2,500여 명이 참여하여 종교를 넘은 문화축제로 운영됨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주요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주요 내용
8.1	개막 미사	리스본대교구장 추기경 주례, 세계 청년들의 신앙 교류 시작
8.2~4	교리 교육 세션	주교들이 각국 청년에게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 제공
8.3	교황 환영 행사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전달
8.4	십자가의 길	에두아르두 7세 공원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기도 진행
8.1~6	성소박람회·화해공원	수도회·천주교단체 소개, 고해소 150개 설치고해성사 진행
8.1~6	문화 프로그램	480개 이상의 공연, 전시, 기도회 등 다양한 신앙 체험 제공
8.5	철야 기도	테주강 인근 들로스 공원에서 밤새 기도와 묵상 진행
8.6	파견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되새김



〈개막미사 현장〉



〈세계 각국 청년의 교류 현장〉 〈거리축제에서 K-POP 공연〉

“청년들은 기도할 때를 제외하면 언제 어디서나 춤을 추며 흥겨운 모습을 보였다. 파견미사 당일, 비박을 한 100만 인파를 디제잉 모닝콜로 깨워 춤추게 한 길레르메 페이조투 신부의 영상은 SNS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며 인기를 얻었다.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팀도 리스본 거리에서 사물놀이 버스킹을 10여 차례 펼쳤고, 외국 청년들도 팽과리와 징을 직접 쳐보며 흥겨워했다.”

자료: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308140201738?utm\\_source=chatgpt.com](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308140201738?utm_source=chatgpt.com)

## (2) 3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2023년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2023.8.6)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하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가 확정됨

○ 대회 기간은 2027년 7월 말부터 8월 초로, 대회 3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정해짐. 대회 기간 중 처음 4박 5일은 14개 지역교구에서 각각 교구대회를 열고, 서울로 모두 집결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본대회를 가짐. 본대회(서울)에서는 교황 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이 진행됨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요〉

- (대회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orld Youth Day(WYD) SEOUL 2027)
- (대회규모) 국내·외 최소 40만 명 이상 (최대 100만 명)
- (대회기간) 2027.7.28~2027.8.8(예정)
  - 본대회(5박6일): 교황 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
  - 교구대회(4박5일): 지역교구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

7월 28일	29일	30일	31일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도착	교구대회			출발	이동	개막 미사	교리교육 성삼일	젊은이 축제(YF)	YF	폐막 미사	
							환영 행사	십자가 의길	밤샘 기도	봉사자 만남	

- (대회장소) 본대회(서울) 및 14개\*(군종교구 제외) 지역 교구
  - \* 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원주, 대전, 청주, 대구, 안동, 부산, 마산, 전주, 광주, 제주
- (주최/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2027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를 주관하는 서울대교구는 최근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대회의 주 참여자(10~20대)가 관심이 많은 K-POP)을 고려하여 서울대회 참석자의 경우 최대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며, 외국인은 20~30만 명일 것으로 기대함

## 2 세계청년대회를 통한 전복의 기회

### (1) 전주교구대회 참여자, 외국인 순례자 최소 1만 명 이상

- 세계청년대회는 지역교구대회를 먼저 참여한 뒤에 모든 참석자가 본행사(서울)에 참여하므로, 지역교구에 상당한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됨. 서울대교구의 전망치(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외국인 20~30만 명)를 기준으로 보면,<sup>3)</sup> 전주교구대회의 참여 인원은 최소 외국인 1만여 명을 포함, 4~5만여 명으로 예상됨
- 이 숫자는 전체 예상 참가자 수를 14개 교구로 나눠 산출한 평균값이며, 전복이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세계 청년이 전주교구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교황이 역사적 현장이나 성지, 종교적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순례하게 되는데,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발굴된 전북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외국인 순례를 포함한 대회 참가자의 숫자는 짐작하기 어려움
- 외국인 포함 4~5만 여명이 전주교구대회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는 2023년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자인 4만 3,000여 명에 맞먹음. 즉 서울 본행사가 아닌 전주교구대회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 청년과 대회 참여자가 전북 곳곳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임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서의 지역교구 행사 사례〉

“26일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347km,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모젤로스 본당 앞에 신자들이 모여 기타로 WYD 주제를 연주하고 박수를 치며 환대했다. 호스트 가족들은 정성스러운 식사를 마련해주었고 오전에는 성당에 모여 준비된 전례를 한 뒤 코르크 마개 공장 견학, 마을 오케스트라 공연장 및 마을 양로원 방문, 체육활동과 춤바댄스 등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본당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그룹을 지어 포르투를 탐방했다.”(살레시오수녀회의 리스본 대회 참가 글 중에서 일부 발췌)



자료: 살레시오수녀회 사이트 : [http://salesiansisters.or.kr/2023\\_08\\_31\\_2023년-세계청년대회/](http://salesiansisters.or.kr/2023_08_31_2023년-세계청년대회/)

### (2) 전복의 종교 및 순례 관광 활성화 계기

- 전복은 천주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6대 종교와 관련한 유산이 풍부하며,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사업(종교문화시설 건립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나, 종교 및 순례 관광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교 및 순례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교, 명상(수행), 치유(healing, 마음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통해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 등의 행위에 참여하는 관광을 말함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검토 보고” 참조

- 대규모 대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관광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문화축제 이벤트 발굴,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을 통해 그동안 미흡하였던 전북의 종교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3) 국제순례지 조성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천주교의 경우 교회법전에 따라 순례지는 교구장이 승인하는 교구순례지, 주교회의가 승인하는 국가순례지,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나뉘는데, 국제순례지는 세계적으로 30곳이 있으며 한국에는 서울(아시아 최초)과 해미읍성(서산시)이 있음
- 천주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과 비종교인도 방문하여 성찰과 치유를 경험하는 순례지는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공유하는 인류 보편 문화유산으로 인식됨. 비천주교 신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일본 시코쿠 순례길 등이 대표적임
- 전주는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지인 전동성당, 이들의 유해가 발굴된 초남이 성지, 기록으로 입증된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가 묻힌 치명자산 성지, 서울 서소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교 성인과 복자를 배출한 숲정이 성지가 있으며, 한국인 주교가 최초로 나온 자치교구(1939년)임. 이러한 역사에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국제 교류가 이뤄진다면 국제순례지 승인이 가능하리라 봄
- 또한, 세계 각국 성직자와 청년에게 한국 및 전북의 천주교 유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재 충청남도도 주도하여 추진하는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내용과 초남이공소(公所) 유산군 현황〉

- 추진경과 : 2016년부터 충청남도와 천주교 대전교구가 공동으로 추진
- 대상유산 :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직후에 형성된 공동체(명례방, 여사울, 초남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산들
  - (명례방) 서울 명동성당
  - (여사울) 당진 신리공소, 당진 합덕성당, 서산 상흥리공소, 예산 여사울성지(교우촌), 천안 성거산성지(교우촌)
  - (초남이) 완주 초남이성지(교우촌), 금산 진산성지(공소), 완주 퇴재성당지(공소), 익산 나바위성당, 전주 전동성당, 진안 어은공소
- 초남이공소 유산군 (전북)
  - 천주교의 자발적 수용기(18세기 후반)에 전라도에 형성된 첫 신앙공동체인 초남이·진산공동체를 모태로 박해기-신앙자유화기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확산·발전

#### 대상 유산 - 초남이공소 유산군



자료: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2024.12.19), "2023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에서 인용

### (4) 세계적인 종교공존 지역으로서 위상 제고

- 전북은 여러 종교가 발전한 영성문화 중심이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표 지역임. 특히 4대 종교가 손을 잡고 함께 순례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진행하였음. 2012년에는 시군과 종단이 의견을 모아 '이웃종교 탐방길(아름다운 순례길)' 10개 코스를 개발하는 등 종교 공존 및 화합을 실천함
-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이지만, '2027 WYD 전주 교구대회' 주제가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계 순례자와 청년, 한국문화와의 만남 외에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실천하는 대회로 만든다면 종교공존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역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임

### (5) 2036 올림픽 유치 활용과 도시 홍보

- 2036 하계올림픽 개최에서 전북(전주)이 갖는 강점은 K-문화 수도라는 점임. 여기에 종교 간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종교문화축제 등 종교 간 공존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올림픽 유치에 있어 전북의 경쟁력이 더 극대화될 것임

-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전주)에 유치될 경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최고의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2036 전북(전주) 올림픽을 홍보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음

## 3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

### (1) 정부와 서울시

- 2027 세계청년대회 관련 특별법 2건이 2024년 11월에 발의됨
  -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김병기·김상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25년에 7억 원을 지원함
  - (통합홍보)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홍보관 설치, 홍보 영상 제작
  -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개발, 운영) 종교적 의미를 넘은 청년 축제 프로그램 개발
- 행사를 주관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23년 12월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24년 7월에 대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8월 7일에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함(서울시 등록)

### (2) 지역교구와 지자체<sup>4)</sup>

- 서울대교구 외 14개 교구는 본대회에 앞서 약 5일간 진행되는 교구대회를 준비 중임
- 경기도는 2024년 8월 20일에 6개 시(수원·용인·의정부·파주·남양주·안성)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청년대회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책을 논의 중임. 경기도에 전국 최다인 외국 청년 5만 명이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종교계·시·군·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회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경기도 세계청년대회 지원협의체 간담회 모습. 대회 관계자(천주교), 경기도 및 6개 시군 관계자, 소방재난본부 및 경찰청 관계자, 타 종교 관계자 등 참여

자료: 경기도 제공 사진

4)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이와 별도로, 수원시는 2027 수원교구대회 조직 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회 전까지 유기적으로 만나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용인시의회에서는 대회를 계기로 용인의 역사종교문화 여행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용역을 진행함
- 충청남도에서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지역 천주교 유산을 세계 명소로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며, 당진시는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짐
- 전라남도 곡성군은 정해박해 천주교역사관 및 평화순례길 조성을 추진하고, 세계청년대회 준비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함. 제주도는 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주관으로 '2027 세계청년대회 제주지역 지원협의체 구성 간담회'를 개최함

## 4 전북의 대응 방향과 과제

### (1) 대회 지원의 필요성과 대응 방향

- 「헌법」 제20조제2항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종교행사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없지 않으나, 종교문화시설 조성, 순례길 조성 및 운영, 개별 종교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며, 세계종교문화축제 등도 지원하였으므로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자체 대응 역시 적절함
-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10~20대 청년과 일반 국민도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이뤄진다는 점, 대회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넘은 공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전북도가 대회를 지원하는 목적은 전북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청년에 대한 손님맞이임. 전북을 방문한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규모 참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의미임
- 또한, 대회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전북을 방문한 세계 청년에게 K-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K-문화수도 위상을 제고하고, 전북의 성지가 국제순례지로 승인받는 계기로 삼아야 함. 여기에 종교공존 지역으로서 이미지를 확산하여 종교·순례 관광의 국제 거점으로 진흥하는 데 대회 지원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전북의 대응 비전과 목표〉

#### 종교에서 시작해, 문화로 기억되는 전북

1 환대와 연대 마음으로  
세계청년 손님맞이

2 K-문화수도 전북만의  
K-문화청년대회운영

3 국제순례지 승인 등  
종교·순례관광진흥

##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 » 세계청년대회 지원정책 기반 마련

○ 첫째, 손님맞이를 위한 지원, K-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적인 종교·순례 관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함

- 전주교구대회에는 전북권 종합행사인 ‘교구의 날’이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지구의 날’과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의 날’이 계획됨. 교구의 날은 전북도와, 지구의 날과 공동체의 날은 각 시군과 관련되므로 전북도와 시군이 지원조직에 참여해야 하며, 각 단위에서의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 및 여행 관련 기관과 단체, 소방·의료·치안 등에 대한 기관 등이 지원체계에 포함되어야 함

- 세부적인 지원협의체 참여 분야와 지원 내용은 일반적인 국제행사 지원 분야와 더불어 세계청년대회 안내 자료(전주교 서울대교구 2027 서울 WYD 지역조직 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자체와의 협력 사항을 참조함

〈세계청년대회의 교구대회 개최 교류 관할 지자체 협력 사항〉

- 교구대회(DID) 준비를 위한 대회 주최 교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
- DID를 위해서도 숙박, 교통, 행사 장소, 의료, 치안, 비상사태 서비스와 재정 지원, 공공시설 사용지원, 문화유산 탐방을 위한 협조가 필요

자료: 전주교 서울대교구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세계청년대회 안내 자료” 참조

○ 둘째, 세계청년대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전주교구에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 더 한국적인 청년대회가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전주교구대회에 대한 홍보, 전북을 방문한 순례자의 숙박, 순례를 위한 순례길 개발과 정비, 외국인 순례자를 위한 환경 조성, 대회를 통한 전북의 종교·순례 관광 진흥 사업,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 방안, 국제순례지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등 대회 진행에 따른 세부 사항부터 대회를 통한 지역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전주교 행사이지만,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 순례자를 환대하는 측면에서,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쌓아 전북을 세계에 알린다는 측면에서, 대회를 계기로 종교·순례 관광의 국제적인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려야 함



2025년 5월25일, 전동성당에서 2027 WYD 전주 교구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및 발대미사가 거행됨

자료 : 카톨릭신문(2025.5.27) 인용

### » 세계청년대회 대응 순례길 정비와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순례길의 기반시설은 순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핵심 요소로, 노면을 정비하고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환경과 외국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벤치, 그늘막, 음수대 등 휴게시설과 공중 화장실을 확충하고, 가로등 및 반사판 등 조명시설을 보강하며, 위험 구간에는 난간과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함

○ (이용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셔틀버스를 도입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구간도 조성함. 순례 인증을 위한 스탬프 투어나 인증서 발급, 모바일 해설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전주의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해설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

○ (운영관리)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공사, 종교단체,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함



- 기존에 조성된 이웃종교 탐방길 중에서 세계청년 대회와 전북의 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선정, 이웃종교 탐방과 전북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검토함
- 전북의 순례지를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순례지로 격상되도록 기초연구 및 국제적 교류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 또한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적극 지원함
- 국제순례지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국제적인 종교·순례관광 거점을 목표로 세부 사업을 개발·추진함
- 6대 종교와 관련된 유네스코 등재 유산(한국의 서원, 동학농민혁명기록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지 등)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천주교 유산 외에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한 6대 종교 유산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5 정책적 제언

### » 종교를 넘어, 전북 모두의 기회로 삼아야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이나, 일반인도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감 형성이 이뤄지는 등 글로벌 청년문화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님
- 세계 각국에서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하고, 전주교구대회에 외국인 1만여 명을 포함하여 4~5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행사라는 점에서, 세계청년대회는 K-문화수도 전북을 알리고 우수한 종교유산을 활용한 종교·순례관광을 진흥하는 중요한 기회임
- 따라서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청년을 환대와 연대의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함

### » 앞으로 2년, 폭넓은 지원조직과 종합계획 필요

- 2027년 세계청년대회까지 2년이 남았음. 전국 최초로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도 사례보다 더 폭넓게 전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전북도·시군, 유관기관, 다른 종교기관, 문화 및 관광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함
- 단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종교유산 활용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대회를 지원하는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참고자료

- 국회. (2025.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
-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5).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세계청년대회 안내 자료”.
-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4.12.19). 2023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

# iSSUE BRIEFING

vol.324



발행인 이남호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